

청소년이 읽을만한 책

출판협회 선정 '이달의 청소년도서' 9종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김낙준)가 선정하는 '이달의 청소년도서' 92년 6~7월 분으로 다음 9종(9책)의 도서가 선정됐다. 분야별로는 철학(1종) 문학(4종) 과학(2종) 역사(2종). 재단법인 한국출판금고(이사장 정진숙)는 총 9백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선정도서 1종당 300부씩을 구입, 전국 각 지방의 공공도서관 132곳을 비롯, 청소년 선도기관·소년원·지방문화원 등 300곳에 기증했다.

삼팔선을 베고 죽을지언정

백범사상연구소 엮음



1894년 동학 접주로서 동학혁명에 참가하면서 항일운동을 시작해 상해 임시정부의 요인으로 활동하며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백범 김구 선생의 어록.

해방을 맞아 귀국한 뒤 암살당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행했던 연설문과 담화문, 그리고 대담 등을 당시에 실렸던 신문과 잡지에서 채록하여 엮은 첫자료집인 이 책은, 백범 사상의 전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만한 것. 해방 뒤 임시정부의 첫 공식성명서인 '국내외 동포에게 고함'('매일신보' 46년 11월9일자)에는 임정의 당면정책이 밝혀져 있는데, "과도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각 분야의 영수회의를 소집하자"는 제6항은 차후에 큰 논란의 빌미가 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혼란과 불안정으로 술렁거리고 있는 해방된 조국을 염려했던 백범의 지극한 나라사랑과, 통일론 등을 엮고 있는 이 책은 그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군데군데 해설을 덧붙여놓았다.

조국과 민족의 앞날을 걱정했던 애국자 김구의 정신과 사상을 새롭게 조명할 기회를 준다.

햇살/A5신/272면/5000원

소설

제임스 미치너 지음 / 윤희기 옮김



40이 넘는 나이에 비로소 소설가로 등단해 일약 베스트셀러작가가 된 미국작가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로 이색적인 소재와 구성이 돋보이는 소설.

그는 첫소설 「남태평양 이야기」로 폴리처상

을 받았는데, 이 작품은 뮤지컬과 영화 「남태평양」의 원작이 됐다. 이 소설은 글쓰기와 출판에 관계하는 사람들인 작가, 편집자, 비평가, 독자가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고전적 주제를 가지고 각자의 입장을 흥미롭고 긴장감 있게 전개해나가는 특이한 작품. 이 책에서 작가는, 초반의 실패를 딛고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소설가와 평생을 책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한 여자 편집자, 문학은 시대정신을 이끌어갈 엘리트문학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문학비평가, 그리고 문화사업에 돈을 투자하는 미망인 독자를 내세워, 작가는 어떻게 글을 쓰고, 편집자는 어떻게 원고를 다듬고, 비평가는 어떤 문학적 기준으로 문학의 방향을 잡으며, 독자는 어떤 마음자세로 책을 대하게 되는 지를 많은 이야기를 통해 전해준다.

소설이, 책이 그것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과연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이 책을 읽는 재미는 '별미'다.

열린책들/A5신/568면/6800원

머나먼 고향길

장정문 지음



성공회 신부인 저자가 북에 고향을 둔 실향민으로서 우여곡절 많았던 지나간 시절을 되돌아보며 쓴 자전적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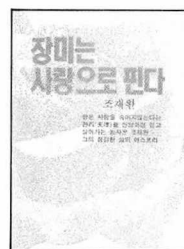
6·25전쟁이라는 참화로 인해 고향을 버리고 가족과도 생이별을 했던 그가 어떻게 살아야 했으며, 그 잃었던 고향에 돌아가 살아가신 어머니와 동생들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책은 한 개인의 특별한 인생체험이 아닌 이산가족 모두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슬픔을 담고 있어 공감대를 형성한다. 20대의 젊은 나이로 인민군에 끌려가 3년간의 포로수용소생활을 거쳐 신부가 되고, 60이 돼야 고향과 어머니·혈육을 잠깐 만나야 했던 저자의, 말로써 표현하기 힘들었던 세월의 아픈 기

억들이 솔직하고 생생하게 적혀 있다. 문학평론가 신동욱씨는 "작가의 정직성에 관하여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이 정직성이야말로 이 책을 진실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다. 만약 성숙되고 세련된 자아가 오직 체면과 자기합리화에 신경을 써 글을 지어냈다면... 아무도 감동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평하고 있다.

을유문화사/A5신/270면/4500원

장미는 사랑으로 핀다

조재완 지음



극작가 차범석씨가 서문에서 밝혔듯이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농촌의 현실을 부동켜안고 가슴앓이를 하면서도 끝까지 농촌을 지키는 파수꾼의 한사람"인 저자는 농촌서 나고 자라 현재는 창원에서 연세장미원을 열어 장미보급을 하는 농부로 이 책은, 장미에 관한 이야기와 피폐화되고 있는 농촌현실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다.

세상사는 지혜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인생관마저 보여주는 저자는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면서도 배움을 버리지 않고 연세대 부설 농업개발원을 마치고,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 현재까지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사는 농군으로 "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아니겠느냐"는 지론을 이 책을 통해 강조한다.

저자는, 후기에서 "그래도 바보스럽게 땅에 엎드려 꿈을 키울 수 있었던것은 '땅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는 天理를 신앙처럼 믿었기 때문이었다"고 토로한다.

웅성출판/A5신/324면/4500원

삶과 그 보람

김태길 지음



서울대 명예교수로 철학문화연구소 이사장인 저자가 삶의 문제를 개인의 차원과 집단의 차원에서 고찰해 썼던 글 3편과 철학자들의 학술모임에서 발표했던 논문과 일반인들을 위해 쓴 짧은 논문 4편을

함께 묶어 펴낸 책.

근래들어 '나'의 삶의 문제를 생각하는 추세가 강한 것을, 과거의 집단주의에 포함된 모순에 대한 반작용의 심리와, 근대 서구문화의 영향 탓으로 분석하는 저자는, "'나'라는 존재를 안으로 깊이 들여다 보면 우리는 '나'가 가족과 연결되고, 사회일반과 연결돼 있음을 알게 된다"고 전제하면서, "결국 공동체를 외면하고 나의 행복이 실현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 책에 수록된 모든 글들은 저자의 그러한 문제의식과 사유과정의 산물이며, '나'와 '가족' '한국사회'의 문제가 그가 이 책에서 논의하는 것.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며 인생설계의 유형은 어떻게 일별되는 지를 알려주는 1장 '삶과 그 보람'을 비롯해 전통사회·현대사회에 있어서의 가족의 의미를 분석한 2장 '나와 가족', 그리고 한국사회와 한국인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는 글인 제3장 '한국의 밝은 내일을 향하여'로 구성돼 있으며, 소론 4편을 마지막 장에 붙였다.

철학과현실사/A5신/282면/4500원

계절은 끝나지 않고

최미나 지음



59년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한 작가가 지금까지 발표했던 작품들 가운데서 자신한 소설 16편을 한데 모아 엮은 소설선집.

사고무친한 시골구석의 김덕환이라는 가난뱅이가 노름판에서 때돈을 벌며 지방세력가가돼 국회의원으로 정계를 주름잡다가 결국 몰락해가는 과정을 그린 「梅花들」을 비롯해, 절망적인 병에 걸려 죽음을 눈앞에 둔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 담겨 있는 「죽음의 舞蹈」등 이 선집에 실린 작품들에서 작가는 낙오되고 인간행렬에서 밀려난 패배한 인간상을 조명하고 있다. 또한 독특한 풍자성과 부정적 비판의식을 보여주는 작가는 우리 사회의 인간성 상실에서 오는 불신풍조의 면면을 경고하고 있다.

"이 인간고독과 불신으로 조성된 인간고립의 경지에서 탈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인간 스스로가 지고 있는 독선의 명령을 털어 버리고 나를 초월하여 타자를 높이고 소중히

여기는 행위에서 구원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데서 오는 것이다... 벽차고 흥미로운 이 형극의 대상을 극복하기 위한 고행이 최미나 문학의 전개도정이었던 것"이라는 게 평론가 김량수씨의 말.

원방각/A5신/396면/5000원

새 이야기

권태문 지음



현재 한국아동문학협회 부회장으로 있는 아동문학가가 펴낸 '재미있는 과학이야기' 시리즈 두번째권.

책 제목처럼 새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만

을 골라 쉽게 풀어쓴 이 책은, '표기비행' '뛰어난 건축가' '괴상한 습성' '언어' '생존을 위한 여행' '먹이 찾아 3만리' '날지 않고 걷는 새' '휴면'으로 구성돼 있다. 새의 날개를 비행기 구조와 비교해 설명하고, 펠리컨이나 매·제비 등의 새가 나는 습성을 소개하고 있는데, 독수리는 뛰는 탄력을 이용해 비행을 하게 된다는 사실 등 세심한 관찰을 통한 조류의 특성을 알려준다. 또한 약 300가닥의 풀잎 섬유를 이용해 집을 짓는 참새와 비슷하게 생긴 위버버드라든가, 땀기갈새, 바느질새 등 특이하게 집을 짓는 새들을 모아 소개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밖에도 남의 둥지에 알을 맡기고 떠나버리는 무정한 빠꾸기 등과 같이 재미있고 괴상한 습성을 지닌 새들의 이야기와 장거리 여행을 하며 살아가는 물떼새, 북극제비갈매기, 황새 등의 습성을 재미있고 쉽게 알려준다.

정암문화사/A5신/172면/3500원

歷史와 人間像

김창수 지음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인 저자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상에 명멸했던 인물들의 역할과 행적은 물론 다양한 인간상을 역사의 전개 속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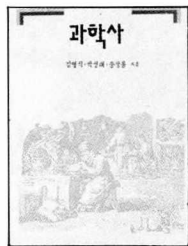
서 관련지어 보고자 한 책.

일반적인 전기류와 달리 '역사속의 인간상'을 조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이 책은, 저자가 월간 「통일」지에 '한국인 누구인가' '근대사의 궤돌들' '한민족사 재발굴' 등의 주제로 발표했던 글에서 다뤘던 인물들을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편으로 나누어 모두 34명을 소개하고 있다. 고대편에는 난세의 풍운아 연개소문, 동방교역의 개척자 장보고를 비롯해 김유신·원효·최치원을, 중세편에는 서희·의천·김부식·최충헌·이규보·배중손 등을, 근세편에는 정도전·김종서·김시습·유성룡·박지원·정약용을, 근대편에는 김옥균·장지연 등을, 현대편에는 홍범도 김삼욱 김익상 등 우리 역사의 한켠에 묵직하게 자리했던 인물들의 업적과 삶의 궤적을 담았다.

동방도서/A5신/330면/5000원

과학사

김영식·박성래·송상용 지음



과학은 이미 특정 전문인들의 고유한 영역을 떠나 일반인들의 일상과 떼어 놓을 수 없는 긴밀한 관계에 놓이게 됐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과학을 알리고 하는, 과학을

알아야 하는 일반인들이 과학의 길로 쉽게 접어들 수 있게 하는데, 그 방법으로 역사적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다.

책 전체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1부(송상용)는 과학의 발생으로부터 과학혁명까지의 서양 과학의 흐름을 개관하고 있으며, 제2부(김영식)는 과학혁명 이후 급속히 팽창해온 과학의 내용과 사회에의 충격을 요약해 전해준다. 이어 제3부(박성래)에서는 한국을 중심으로 동양의 전통과학을 소개하고, 인도·중국·일본의 과학도 아울러 소개하고 있다. 컴퓨터 보급 등의 영향을 받아 급속도로 과학에 대한 관심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 초기의 자연철학으로부터 코페르니쿠스의 혁명, 갈릴레오, 뉴턴의 과학으로 이어지는 서양과학사의 흐름과 동양 3국의 과학사를 곁들여 전해주는 이 책은 과학에 대한 고정관념, 즉 일상과 상관없는 어려운 학문이라는 생각을 지우게 한다.

전파과학사/A5신/386면/6000원

일이 좋아 일을 찾아 즐기는 최병윤 부장의 하루

아침 8시.
그는 어김없이 출근해 있습니다.
— 술이 좋아 과음한 다음날은 빼고 말입니다.
그리고 30분동안은 하루의 일과를 메모합니다.
월요일은 8시 30분부터 월요간부회의를 주재하여 그 주간의 현안과 관련된 과제와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의 하루는
작업진행현황을 구석구석 빈틈없이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 진행중인 일의 내용과 과정을 구슬땀듯 줄줄이 챙길 수밖에요.
직원들은 그런 그와 맞닥뜨리면 호랑이 만나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는 아무리 쉬워보이는 원고일지라도 세 번쯤은 훑어보아야 판면구상을 합니다.

그는 정말 일이 좋아 일을 찾아 즐기는가 봅니다.
그의 하루는 정녕 종일토록 이런 마음으로 가득한가 봅니다.

그와 일 이야기를 해보면 시원시원할 것입니다.



컴피아트가 하는 일

- 편집 / 교과서·참고서·전문지·각종사전·어학교재 등
- 교열·교정 / 새로 개발한 '한글맞춤법 software'를 활용하므로 정확 무오합니다.
- 디자인 / 표지디자인·텍스트디자인·일러스트레이션·레이팅 등
- 제작대행 / 조판·제판·인쇄·제본 등 책의 제작공정을 대행관리하여 납품해드립니다.

컴피아트사의 시설

- 편집입력기 15대
- 영문 전용입력기 2대
- 레이저 프린터 2대
- 인화지 및 필름 출력기 1대
- 영문 전용출력기 1대

지식산업의 파이오니어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87-1
TEL : 732-8274 · 738-8622
FAX : 739-9356